

# 원효와 원측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연구

## - 『대혜도경종요』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분석에 기초하여 -

이민성 박사

(독일 보훔대학교 동아시아학)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라 승려 원효(元曉, 617-686)와 원측(圓測, 613-696)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필자는 디지털 분석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헌 내용에 기반하여 둘의 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까닭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CBETA와 SAT를 이용하여 원효의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 내 주요 논쟁의 핵심 단어를 검색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 결과는 원효와 원측이 상당히 유사한 주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시적 지표를 나타낸다.

둘째, 규기(窺基, 632-682)와 원측이 거처하던 자은사(慈恩寺)와 서명사(西明寺)가 건립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갈등을 조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부인(고종의 후궁, 훗날 측천무후)의 개입이 논의된다. 그리고 이것이 원효에게 까지 미친 영향을 유추해본다.

셋째, [이 역사적 배경과 연관성이 있는] 『대혜도경종요』 내에서 원효가 규기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부분과 더불어 특정 주제에 대해 원측과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을 밝힌다. 특히 교판 해석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한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원효와 원측이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원효, 원측, 규기,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 측천무후.

## 1. 서론

동아시아 불교에서 철학·교학적 담론이 가장 꽃을 피웠던 시기는 7세기일 것이다. 5세기 구마라집의 구역(舊譯)을 거쳐 6세기 혜원(慧遠, 523-592), 지의(智顛, 538-597), 길장(吉藏, 549-623) 등의 주석가들이 전반적인 불교 해석과 경전의 체계에 대해 논하였고, 현장의 귀국(645) 후에는 역경사업에 대한 당 태종의 막대한 지원으로 동아시아의 승려들이 모여들었다. 원측은 이 시기에 이미 당나라에 머물고 있었고, 원효도 현장에게 유식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시도했다.

필자는 원효(元曉, 617-686)와 원측(圓測, 613-696)의 연관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이 까닭에 문헌 내용 및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현재 두 학승 간의 관계에 관한 논문은 찾기 힘들다. 이는 그들의 글에서 서로 직접적인 인용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않고, 활동지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해보면, 이들은 동시대 인물이자 출생지가 각각 경산과 경주로 가깝고(『삼국유사』 기준, 押梁郡와 牟梁: 약 30km), 원효는

원측이 658년 서명사(西明寺)의 대덕으로 초빙된 이후에 당나라 유학을 시도했다. 그러므로 원효가 원측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원효와 동시대의 학자와의 관계는 의상(義湘/相, 625-702)과 법장(法藏, 643-712) 이외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직접적인 관계는 의상 이외에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원효와 동시대 학자와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sup>1)</sup> 원효가 쓴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의 주요 논쟁이 동시대 학승인 원측과 규기의 주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효의 이 『반야경』 해설서에서 그가 규기의 주장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점이 밝혀졌다. 현장의 600권 『반야경』이 번역된 시기(659-663)는 원효가 활발히 활동한 시기와 겹친다. 즉, 이 시기는 원효가 2차 도당을 그만 둔 시점이자 현장계가 장안 시내를 떠나 『반야경』을 번역한 시기와 일치한다. 원효의 현장역 『반야경』 해설서인 『대혜도경종요』는 이러한 배경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 해설서를 중심으로 원효와 원측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sup>2)</sup>

## II. 원효와 원측의 관계 가능성을 나타내는 디지털 분석 지표

### 1. 원효의 『대혜도경종요』를 기반으로 한 CBETA 검색 결과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 2장 경종(經宗)의 특징은 반야(般若)에 대한 해설을 유식학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원효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된 길장도 『반야경』의 해설서인 『대품경유의(大品經遊義)』를 썼지만, 삼성설(三性說)

1) Minsung Lee. 2022. "Contextualising Wönhyo." PHD dissertation, Ruhr-Universität Bochum, pp.95-152.

2) 본 연구는 신라 승려 원효와 원측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즉, 필자는 그들의 주장에 연관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 같은 유식학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삼성에 관한 용어는 진제(眞諦, 499-569)도 번역한 바 있지만, 원효는 현장의 번역어인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타기성(依他起性)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 및 신유식 학승들에 대해 원효가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 유식학의 개념어들은 2장의 실상반야(實相般若)에 관한 네 가지 견해를 소개하는 단락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단락 내 중요 단어인 ‘遍計所執自性&依他起自性&勝義&實相’을 CBETA에서 검색하면 흥미로운 문헌 목록의 결과가 도출된다.

〈표1〉 CBETA에서 ‘遍計所執自性&依他起自性&勝義&實相’ 검색 결과

서지정보	문헌	저자 및 역자	번역 시기
T33n1697	『대해도경중요』	원효	
T31n1602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역자: 현장	645-646
T30n1579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역자: 현장	646-648
T16n0676	『해심밀경(解深密經)』	역자: 현장	647
T31n1594	『십대승론본(攝大乘論本)』	역자: 현장 (아상가Asanga 본)	648-649
T31n1597	『십대승론석(攝大乘論釋)』	역자: 현장 (바수반두 Vasubandhu본)	648-649
T31n1598	『십대승론석(攝大乘論釋)』	역자: 현장 (아스바바 Asvabhāva본)	648-650
T30n1571	『대승광백론석론(大乘廣百論釋論)』	역자: 현장 (다르미팔라 Dharmapāla 저)	650
T31n1585	『성유식론(成唯識論)』	역자: 현장 (다르미팔라 Dharmapāla 저)	659
T31n1600	『변중변론(辯中邊論)』	역자: 현장 (바수반두 Vasubandhu본)	
X21n0369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원측	
X48n0806	『성유식론요간(成唯識論料簡)』	규기	
X48n0808	『성유식론별초(成唯識論別抄)』	규기	
T43n1830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	규기	

\*출처: CBETA CBReader 2016

원효 이전 그리고 동시대에는 현장, 규기, 원측의 문헌에만 현장의 유식·중관학의 용어와 반야(般若)의 조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般若’를 추가해서 ‘遍計所執自性&依他起自性&勝義&實相&般若’ 5개의 용어를 검색하면 『해심밀

경』이 목록에서 사라지는데, 『대혜도경중요』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현장과 관련된 유식 논서이다. 즉, 유식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반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 동시대의 네 학승들의 특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중관학의 용어 이제(二諦)를 추가해서 ‘二諦&遍計所執自性&依他起自性&勝義&實相&般若’<sup>3)</sup>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2〉 CBETA에서 ‘二諦&遍計所執自性&依他起自性&勝義&實相&般若’ 검색 결과

서지정보	문헌	저자 및 역자	번역시기
T33n1697	『대혜도경중요』	원효	
T30n1571	『대승광백론석론』	현장 (다르미팔라 저)	650
X48n0806	『성유식론요간』	규기	
T43n1830	『성유식론술기』	규기	
X21n0369	『해심밀경소』	원측	

\*출처: CBETA CBReader 2016

원효는 『대혜도경중요』를 저술할 때 이미 규기의 『성유식론』 혹은 관련 논서들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명시적으로 이 『성유식론』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규기와 법상종의 중요한 이론인 심분설(心分說)을 『대혜도경중요』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효는 반야를 般若과 波若 두 가지로 자주 표현하지만, 규기가 波若을 사용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조적으로 원측은 이 두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波若&遍計所執自性&依他起自性&勝義&實相&二諦’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원효와 원측의 글만 남는다.

〈표3〉 CBETA에서 ‘波若&遍計所執自性&依他起自性&勝義&實相&二諦’ 검색 결과

서지정보	문헌	저자
T33n1697	『대혜도경중요』	원효
X21n0369	『해심밀경소』	원측

\*출처: CBETA CBReader 2016

물론 이들은 이 용어를 함께 사용하지만, 『해심밀경소』는 반야를 중점적으로

3) 이는 『대혜도경중요』 내 실상반야에 대한 네 가지 견해의 소개 중 세 번째, 네 번째 견해의 주요 단어이다.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들의 병치는 우연이라 볼 수 없으며, 문헌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혜도경종요』 5장 교판(敎判)에서 원효는 『해심밀경』의 『반야경』 2시 법륜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의 교판이 원측의 교판 해석과 같다는 점은 위의 결과와 충분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sup>4)</sup>

『대혜도경종요』의 2장에서 관조반야(觀照般若)에 대한 설명이 끝날 무렵 원효는 반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여기에서 ‘무분별지(無分別智)’와 ‘오상(五相)’에 대한 유식학의 설명을 포함한 『섭대승론(攝大乘論)』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볼 수 있다.<sup>5)</sup> 이 문단의 핵심 개념 용어인 ‘無分別智 & 五相 & 攝大乘論 & 觀照 & 般若’가 포함된 텍스트를 CBETA에서 검색하면, 첫 번째 검색과 유사한 결과가 생성된다.

(표4) CBETA에서 ‘無分別智 & 五相 & 攝大乘論 & 觀照 & 般若’ 검색 결과

서지정보	문헌	저자
T33n1708	『인왕경소(仁王經疏)』	원측
T33n1697	『대혜도경종요』	원효
X21n0369	『해심밀경소』	원측
T43n1830	『성유식론술기』	규기

\*출처: CBETA CBReader 2016

4) 이 부분은 ‘IV. 원측과 규기의 주장, 그리고 원효의 견해’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5) 『大慧度經宗要』(韓佛全1, 482a) “검토해 말자하면, 이 [반야바라밀에 관한 네 가지 해석] 가운데 앞의 세 가지 주장은 자취에 의지해 진실을 드러낸 것이다. 초지 이전과 십지에서서의 반야를 통틀어 취하여 유루와 무루를 뜻에 따라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은 십지에서서의 무분별지(無分別智)만 드러낸 것이다. 실상을 증득하고 모든 희론을 끊으며 4구를 초월하여 다섯 가지 상[五相]을 멀리 벗어난 것이다. 案云 此中前三義者依迹顯實。通取地前地上波若 有漏無漏隨義而說。第四義者 唯顯地上無分別智。證會實相 絕諸戲論 超過四句 遠離五相。”; 『攝大乘論』(大正藏31, 128a) “무분별지의 자성은 다섯 가지의 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섯 가지 상이란, 첫째 사유하는 것이 아닌 것을 떠나기 때문이며, 둘째 각관지(覺觀地)가 아니라는 것을 떠나기 때문이며, 셋째 멸상수정(滅想受定)의 고요함을 떠나기 때문이며, 넷째 색의 자성을 떠나기 때문이며, 다섯째 진실한 뜻(眞實義)의 다른 분별을 떠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상을 떠난 지혜, 이 가운데서 무분별지(분별이 없는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無分別智自性 應知離五種相。五相者 一離非思惟故, 二離非覺觀地故, 三離滅想受定寂靜故, 四離色自性故, 五於眞實義離異分別故。是五相所離智 此中應知是無分別智。”

원효 이전에 두 학자만이 이 용어들을 사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합성된 觀照와 般若를 한 단어로 검색하면 (觀照般若 & 無分別智 & 五相 & 攝大乘論), 원측의 『인왕경소』와 원효의 『대혜도경종요』만 남게 된다.

〈표5〉 CBETA에서 觀照般若 & 無分別智 & 五相 & 攝大乘論 검색 결과

서지정보	문헌	저자
T33n1708	『인왕경소』	원측
T33n1697	『대혜도경종요』	원효

\*출처: CBETA CBRReader 2016

『인왕경소』 역시 『해심밀경소』와 마찬가지로 『반야경』 2시 범문설을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대혜도경종요』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원측의 글에 나오는 상기 용어가 『대혜도경종요』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이외에 아무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우연일 수 없다.

## 2. SAT의 문헌 유사도 프로그램 분석 결과

먼저 SAT의 Word2Vec 기술을 이용한 문헌의 유사도 프로그램을 소개한다.<sup>6)</sup> 2018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이 기술은 『대정신수대장경』을 컴퓨터가 분석하여, 연관성이 있는 10개의 문헌 또는 단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如來藏’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연관된 단어들이 도표로 나타난다.

〈그림 1〉 SAT의 Word2Vec 기술을 통해 검색한 ‘如來藏’과 그 연관된 단어

### Visualization of the scriptures by Word2Vec

○ Indic section ○ Chinese section ○ Japanese section ● Entire Taisho ○ Select a scripture  
 - Option: Open Size: ○400 ●1200 | Window: ○10 ●15  
 Entire Taisho: 如來藏 : 名如來藏, 不空如來藏, 勝鬘經, 自性清淨心, 空如來藏, 攝藏, 如來藏性, 勝鬘, 阿梨耶識, 煩惱藏



\*출처: SAT DB 2018 (<https://21dzk.l.u-tokyo.ac.jp/SAT2018/master30.php>)

6) <https://21dzk.l.u-tokyo.ac.jp/SAT2018/master30.php>

최신 디지털 인문학 추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기초적이지만, 신뢰할 만한 결과물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검색창에 원효의 『대혜도경종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림2〉 SAT의 Word2Vec 기술을 통해 검색한 ‘『대혜도경종요』’와 연관된 문헌  
Word2Vecでの分析による関連語探索

○ 印度撰述部 ○ 中国撰述部 ○ 日本撰述部 ● 大正蔵全体 ○ 個別典籍を選択  
- オプション : 開く Size: ●400 ○1200 | Window: ●10 ○15  
大正蔵全体: 大慧度經宗要, 中邊分別論疏, 法華宗要, 不增不減經疏, 十卷章, 大無量壽經疏, 十門和評論, 解深密經疏, 涅槃宗要, 成唯識論疏, 妙法蓮花經疏



\*출처: SAT DB 2018 (<https://21dzk.l.u-tokyo.ac.jp/SAT2018/master30.php>)

대부분 원효 저술이 연관되어있는 가운데 원측의 『해심밀경소』가 눈에 띈다.<sup>7)</sup> 또한, 원효의 다른 저술인 『십문화쟁론』, 『법화종요』, 『화엄경소』, 『무량수경종요』, 『중변분별론소』, 『금강삼매경론』, 『기신론소』를 검색하여도 원측의 『해심밀경소』가 연관된 문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

〈그림3〉 SAT의 Word2Vec 기술을 통해 검색한 ‘『십문화쟁론』’과 연관된 문헌  
Word2Vecでの分析による関連語探索

○ 印度撰述部 ○ 中国撰述部 ○ 日本撰述部 ● 大正蔵全体 ○ 個別典籍を選択  
- オプション : 開く  
大正蔵全体: 十門和評論, 中邊分別論疏, 大慧度經宗要, 成唯識論疏, 解深密經疏, 不增不減經疏, 涅槃宗要, 法華宗要, 古述記, 辨中邊論述記, 攝大乘論世親釋



\*출처: SAT DB 2018 (<https://21dzk.l.u-tokyo.ac.jp/SAT2018/master30.php>)

7) 『해심밀경소』는 현장의 제자 현범(玄範, ?-?), 원효, 원측 등이 저술했지만, 현존하는 문헌은 원측의 저술이다. 기타의 『해심밀경』 주석서로 신라 문헌의 『해심밀경기(解深密經記)』가 있다.

원효가 『대혜도경종요』를 저술하기 전에 규기의 저술을 본 것이 확실하다는 결과와 함께 상기의 결과는 우연일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효와 원측의 연관성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원효와 동시대에 활동하여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원측과 규기의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 III.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본 원측과 규기, 그리고 원효

원측<sup>9)</sup>과 규기<sup>10)</sup>의 교학적 해석 차이는 당대 잘 알려진 대립<sup>11)</sup>으로 보이며, 그

- 
- 8) 이민성. 2022. 「규기의 주장에 대한 원효의 견해, 그리고 원측과의 접점(1)」, 『선문화연구』32, 149-178쪽.
- 9) 원측의 전기는 다음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대주서명사고대덕원측법사불사리탐명(大周西明寺故大德圓測法師佛舍利塔銘)』(근續藏88, 384b-385a); 『송고승전(宋高僧傳)』(大正藏50, 727b); 『삼국유사(三國遺事)』(大正藏49, 973c); 『고봉경증의대덕원측화상휘일문(故翻經證義大德圓測和尚諱日文)』(大藏經補編選錄31, 595a); 『신수분과육학승전(新修科分六學僧傳)』(근續藏77), etc. (Wang Ying. 2017. "A Critical Study on Wōnch'ūk's Life and his Doctrinal Classification in his Commentary on the Jieshenmi j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mburg. pp. 5-7). 송복(宋復, fl.1115), 『대주서명사고대덕원측법사불사리탐명』(근續藏88, 384b): "법사는 이름이 문아이고 자는 원측이며 신라 국왕의 자손이다. 세 살 때, 집을 떠나, 15세 때 업을 [스승에게] 요청했다(승려가 됨). 먼저, 두 법사 법상(法常, 569-645)과 승번(僧辯, 568-642)의 강의를 들었다. 선천적으로 똑똑하고 슬기롭고 [다른 아들들] 능가했다. [말이] 일단 그의 귀를 통과하면 마음에서 잊지 않았다. 정관(貞觀, 627-649)에 태종이 도첩을 하사하였다. 수도 장안의 원법사(元法寺)에 머물렀고, 비담, 성실, 구사 등의 논서를 열람하며, 옛 해설과 최근 해설을 함쳐 일깨웠고, 명성이 자자했다." (남무희.2006. 「원측의 입당구법과 당에서의 활동」. 『중국사연구』 43, 69-92쪽; John Jorgensen. 2013. "Representing Wōnch'ūk." In *Religion and Biography in China and Tibet*, edited by Benjamin Penny. New York: Routledge. p.104). 송복의 글에 따르면, 태종으로부터 도첩을 받은 원측은 우부인(훗날 축천무후)의 영향이 강력했던 때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 676년에 인도 승려 디바카라(613-687)가 범본을 가져와서 『대승밀엄경(大乘密嚴經)』과 『대승현식경(大乘顯識經)』 등을 번역할 때, 원측은 이 번역을 돕기 위해 다섯 명의 승승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693년, 보리유지(菩提流志)가 가져온 범본을 원측이 번역(『보우경(寶雨經)』)했고, 695년,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華嚴經』을 가져왔을 때도 번역의 고증자로 참여하였다. (이만. 2000. 『한국유식불교사상사』. 서울: 藏經閣. 142쪽).
- 10) 기(基) 또는 자은(慈恩) 또는 승기(乘基)라고도 불리우며, 대부분의 전통 및 현대 학자들이 그를 현장의 수제자로 여긴다. 아홉 살에 승려가 되었고, 648년부터 현장에게 사사받았다. 654년에는 현장에게 산스크리트어를 배웠고, 659년 『성유식론』을 현장과 함께 번역하였다. (大正藏50, 725b-726b).
- 11) 키츠카와 토모아키(橋川智昭)의 연구 [2001, 「圓測思想의 재검토와 과제」, 『보조사상』 16, 167-208쪽]에서 그는 원측과 규기의 주장이 알려진 바와 다르게 오히려 동일한 점이 부각된다는

들의 유식 교학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규기의 제자 혜소가 쓴 『성유식론요의등(成唯識論了義燈)』의 내용, 그리고 『송고승전(宋高僧傳)』내 원측의 강의 도청설 등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sup>12)</sup> 규기의 활동 시기를 볼 때, 원측과 규기의 갈등은 빨라도 650년 중반 혹은 『성유식론』이 번역된 즈음(659)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필자는 원측과 규기의 대립이 권력자의 영향으로 인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의 대립은 우부인(고종의 후궁; 훗날 측천무후)<sup>13)</sup>이 원측을 지원하고, 659년 현장계와 거리를 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부인은 태종의 후궁이었으며, 태종의 사망 이후에는 그의 아들인 고종의 후궁이 되었다. 이 시기에 원측은 서명사(西明寺)에 대덕으로 초빙되어 주석하였고, 규기는 자은사(慈恩寺)에 대표 승려였다. 그런데 자은사는 태종(太宗)의 부인 이자 고종(高宗)의 어머니인 문덕황후(文德皇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648년 지어진 사찰이고, 서명사는 658년 병든 왕자 이흥(나중에 4대 황제 중종)을 위해, 즉 우부인의 아들의 병을 호전시키기 위해 지은 사찰이다. 그러므로 우부인이 자신의 과거(태종 시절의 후궁)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은사 내 현장계의 학승들을 배척 내지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659년 현장은 도사에서 떨어진 옥화궁(玉華宮)<sup>14)</sup>으로 거주지를 옮겨 말년에 『반야경』을 번역하였고, 이 번역이 끝나고 고종의 명에 의해 664년 현장의 번역사업은 막을 내린다.

---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뒤에 언급할]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본 결과, 필자는 두 학승의 주장이 다르다는 기존의 학설(羽溪了諦, 1916. 『唯識宗の異派』. 『宗教研究』 1(1), 65-84쪽 등)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12) 남동신. 2008. 「玄奘의 印度 求法과 玄奘像의 추이」. 『불교학연구』 20, 191-242쪽; 장규연. 2015. 「서명학파(西明學派)라는 창」. 『한국사상사학』 50: 328-329쪽; 江田俊雄. 1954. 「慈恩・西明爾學派の『金光明最勝王經』解釋」. 『印度學佛教學研究』 2(2), 531-532쪽; 結城令聞. 1956. 「玄奘とその學派の成立」.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1, 368-372쪽; John Jorgensen. 2013. "Representing Wōnch'ūk." In *Religion and Biography in China and Tibet*, edited by Benjamin Penny. New York: Routledge. pp.74-76.
- 13) 측천무후는 690년 재위하였다. 그러나 고종의 첩인 655년부터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이었다. 당 태종이 현장의 번역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고종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멀어졌다. 그리고 고종 재위 시는 규기보다 원측의 기록이 더욱 돋보인다.
- 14)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大正藏50, 275c).

사학계의 연구에서는 현장의 입멸 이후 고종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고, 우부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5)</sup> 그리고 규기의 기록은 이후부터 찾기 어렵다. 다만 9세기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여행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규기에 관한 기록을 짧게 볼 수 있다.

開成五年 七月 (840년 7월): “석문사에서 서쪽을 향해 비탈을 올라 2리 정도 가서 동자사(童子寺)에 이르렀다. 자은(慈恩) 규기법사(窺基法師)가 신라 승려 현측법사(玄測法師, 원측)<sup>16)</sup>를 피해 장안 [시내]에서 [떠나] 와 처음으로 유식을 강술한 곳이다.”<sup>17)</sup>

이는 규기가 원측을 피해 장안 외곽에 있는 동자사에서 머물렀다는 내용이다. 원측과 규기가 입멸 후에 기록된 이 기행문을 통해 9세기 일본에까지 그들의 갈등이 전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 증거들만으로 현장계가 몰락하고, 원측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언급한 사건들과 이외 당시에 일어난 몇몇 사건들을 나열하면, 이 시론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가까워진다.

648년: 규기가 거주한 자은사는 태종의 황후의 넷을 기리기 위해 건립.<sup>18)</sup>

15)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1979. “Kao-tsung (reign 649–83) and the empress Wu: the inheritor and the usurper.”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3, edited by Denis Twitchet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64–266.

16) “초본(抄本)은 현측(玄測)이라고 하였으나 원측(圓測)의 잘못이다. 현(玄)과 원(元)은 같은 뜻으로 여러 번 사용되며, 원(元)은 또한 원(圓)과 음이 같다. 따라서 원(圓)이 와전되어 현(玄)이 된 것이다.” (小野勝年. 1967.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第3卷. 鈴木學術財團, 192쪽);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1&prevPage=0&prevLimit=&itemId=ds&types=&synonym=off&chineseChar=on&brokerPagingInfo=&levelId=ds\\_003r\\_0010\\_0030\\_0290&position=-1&position=-1](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1&prevPage=0&prevLimit=&itemId=ds&types=&synonym=off&chineseChar=on&brokerPagingInfo=&levelId=ds_003r_0010_0030_0290&position=-1&position=-1), 2023.01.02).

17) 從石門寺向西上坂 行二里許 到童子寺. 慈恩臺法師 避新羅僧玄測法師 從長安來 始講唯識之處也. (大藏經補編選錄95, 81a).

- 655년: 우부인은 고종의 후궁이 됨 (이전에는 고종의 아버지인 태종의 후궁).<sup>19)</sup>
- 658년: 우부인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서명사를 건립, 그리고 원족을 대덕으로 초빙.<sup>20)</sup>
- 659년: 현장은 옥화궁(장안 교외)으로 이동.<sup>21)</sup>
- 659년: 『성유식론』 편역(원족의 강의 도청설; 규기의 요청으로 계획했던 번역 학생들 배제; 이 논서는 인도 10대 논사 중 호법의 해석 중심으로 편협하게 교리 해석).
- 660년대: 화엄종 지엄(智嚴, 602-668)이 장안 시내로 내려옴 (지엄의 종남산 내 거주 사찰은 수·당 시대 권력자들의 만남의 장소).<sup>22)</sup>
- 661?년: 원효의 유학 포기, 그리고 의상은 계획했던 현장이 아닌 지엄에게 유학을 가서 제자가 됨.
- 664년: 『반야경』 번역 후 고종의 명에 의해 역경 사업 중단.<sup>23)</sup>
- 670년: 지엄의 제자인 법장의 화엄종 세력 흥기.<sup>24)</sup>
- 7세기 후반: 원족의 견해에 대한 [규기의 제자] 해소의 비판.<sup>25)</sup>

첸진화(Chen Jinhua)의 연구에 따르면, 화엄종 승려이자 의상과 법장의 스승이었던 지엄이 660년대에 종남산에서 장안 시내로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

18)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大正藏50, 259c-260a).

19) Andrew Eisenberg, 2012. "Emperor Gaozong, the Rise of Wu Zetian, and Factional Politics in the Early Tang." *Tang Studies* vol. 30. p. 45.

20) John Jorgensen, 2013. "Representing Wönch'ük." In *Religion and Biography in China and Tibet*, edited by Benjamin Penny. New York: Routledge. p.106.

21) 옥화궁은 647년에 지어진 당 태종의 여름휴양소였다. 651년에 불교사원으로 개원하였다. Dorothy C. Wong, 2018. *Buddhist Pilgrim-Monks As Agents of Cultural and Artistic Transmission: The International Buddhist Art Style in East Asia, Ca. 645-770*. p.10.

22) Jinhua Chen, 2007. *Philosopher, Practitioner, Politician: The Many Lives of Fazang (643-712)*, Leiden: Brill. p.384.

23) Denis Twitchett and Haward J. Wechsler, 1979. "Kao-tsung (reign 649-83) and the empress Wu: the inheritor and the usurper."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3, edited by Denis Twitchet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64-266.

24) Jinhua Chen, 2007. *Philosopher, Practitioner, Politician: The Many Lives of Fazang (643-712)*, Leiden: Brill. p.384.

25) 남무희, 2005. 『圓測의 生涯와 唯識思想 研究』, 國民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41-150쪽.

시기에 의상은 현장에게 유학을 가려했던 계획과 달리 지엄의 제자가 되었다. 지엄이 거주했던 종남산 내 거주 사찰은 수·당 시대 권력자들의 만남의 장소였는데, 그가 중심가로 진출한 것은 수나라 핏줄이었던 우부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며, 상기 언급했던 우부인의 과거를 고려할 때, 현장계의 몰락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sup>26)</sup> 이 역시 원효가 [660년대에 저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sup>27)</sup> 『대혜도경종요』에서 규기와 원측이 대립한 주제를 다룬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야경』의 번역을 마지막으로 번역 사업은 고종의 명에 의해 중단이 되며, 이후 670년부터 지엄의 제자 범장의 화엄종이 중국불교의 주류를 이루었고, 범장이 의상에게까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보면 범장 이후에 중국불교와 신라불교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규기의 제자 혜소는 원측의 견해를 비판하는 목적으로 『성유식론요의등』을 저술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우부인의 영향력과 관련해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10권을 보면, 서명사의 거대한 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다소 특이하다.

“비록 양(梁)의 동태사(同泰寺)나 위(魏)의 영녕사(永寧寺)도 [서명사 크기에] 미치지 못한다.”<sup>28)</sup>;

“그 절(서명사)의 벽(면)은 350보이고, 사원의 둘레는 수 리(里)이다.”<sup>29)</sup>

26) 필자는 이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27) 원효는 『대혜도경종요』 전체 내용에서 현장역 반야경 578권에 해당하는 「이취분」 중 단 한 단락만을 인용할 뿐이다. 현장역 『반야경』 전체를 참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원측이 1권과 578권의 서문을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규기와 원측의 대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성은 원효가 인용한 「이취분」의 내용이 현존하는 문헌 중 규기의 『대반야바라밀다경반야이취분술찬』에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며, 그가 현장역이 아닌 규기의 주석서를 보고 『대혜도경종요』의 해당 부분을 저술했다는 것을 규명한 바 있다. 또한, 『대혜도경종요』의 5장 판교장에서 논하고 있는 원효의 『반야경』 교판은 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모로 시케기의 짧은 언급이 있었는데, 이 역시 『대혜도경종요』가 현장계의 몰락(664년) 즈음에 쓰여졌다는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28)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大正藏50, 275c) “雖梁之同泰 魏之永寧 所不能及也.”

“7월 14일 가을에 이르러 승려들을 맞이하여 사찰에 들게 했는데 그 위의(威儀), 당개(幢蓋:장엄구), 음악 등은 하나같이 자은사에 들어갈 때와 비(碑)를 맞이할 때의 법식[과 같았다].”<sup>30)</sup>

“중사(中使)와 조정의 신하(朝臣)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고, 솜과 비단(綿帛綾錦) 등을 보시한 것이 전후로 [모두] 만여 단(段)이었으며, 법복과 납가사(納袈裟) 등도 수백 벌이었다.”<sup>31)</sup>

위의 설명만 보면 서명사는 역대 최대의 규모로 지어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상을 최고로 치켜세우려 한 당대의 분위기를 직감할 수 있으며, 그 법식이 황후의 녀을 기리는 자은사와 동일한 규모로 성대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이한 서술은 우부인의 아들을 위해 지은 서명사를 건축할 때 자은사를 의식하며 불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서명사와 관련한 현장의 일화 다음에는 『반야경』 번역을 위해 옥화궁으로 현장이 이주하는 내용이 뒤따르는데, 자은사와 서명사에 대한 우부인의 배경을 함께 고려할 때 분명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현장의 『반야경』 600권 번역에 대한 대중들의 찬탄의 내용이 더불어 소개가 되는데, 이 현장의 마지막 번역의 서문을 쓴 이가 규기가 아닌 원측이라는 점이 다소 이상하다.<sup>32)</sup> 비슷한 시기인 659년, 현장과 규기가 편역한 『성유식론』은 규기에게 한 현장의 강의 내용을 원측이 도청했다고 하는 논서인데<sup>33)</sup>,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규기와 원측 간의 분쟁을 암시한다.

한편 원효의 『대혜도경종요』는 서문인 대의(大意)에서 ‘[현장이 마지막으로 번역한] 600권’ 반야경에 대해 해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부인에 관한 가설이 맞다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원효의 해설서에도 스며들어 있을 것이 자

29)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大正藏50, 275b)“其寺面三百五十步 周圍數里.”

30)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大正藏50, 275c)“至秋七月十四日, 迎僧入寺, 其威儀幢蓋音樂等, 一如入慈恩及迎碑之則.”

31)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大正藏50, 275c)“中使朝臣問慰無絕 賻施帛綵綾錦前後萬餘段 法服納袈裟等數百事.”

32) 『大般若波羅蜜多經』(大正藏5, 1a). “西明寺沙門玄則製.”; 각주 16 참고.

33) 『宋高僧傳』(大正藏50, 727b).

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혜도경종요』의 주요 논쟁처에는 원측과 규기가 달리 주장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sup>34)</sup> 원효의 해설서가 규기와 원측의 대립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상기 언급한 역사적 배경과 권력자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때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원효의 이 저술에서 이해하기 힘든 독특한 부분은 서문에서 분명히 현장역 600권 『반야경』에 대한 해설을 한다고 했으나, 원효가 인용한 부분은 578권에 해당하는 「이취분」뿐이다. 현장역 578권은 독특하게 1권처럼 서문이 다시 서술되고 있는데, 그 서문의 저자는 1권과 마찬가지로 원측이다.<sup>35)</sup> 한편 규기는 이 578권에 대한 해설서인 『대반야바라밀다경반야이취분술찬』을 저술하였고, 원효는 이 규기의 해설서를 보고 『대혜도경종요』를 집필한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sup>36)</sup> 이 밖에 원효는 『판비량론』에서 호법(護法, Dharmapāla, 530-561)의 비량을 비판한 바 있다. 상기 언급한 사실들은 661년 즈음 원효가 현장에게 유학을 포기한 시기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현장역 『반야경』에 대한 원효의 해설서인 『대혜도경종요』가 원측과 규기 간의 대립이 있었던 주제를 논의한다는 점은 분명 우연일 리가 없으며, 규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원효의 관점을 다른 저술에도 적용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서 잠시 언급했던 원측의 강의 도청설은 현장이 규기에게 『성유식론』 강의를 한 것을 원측이 문지기를 매수하여 엿듣고 서명사에게 규기보다 먼저 설파했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원효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혜도경종요』

34) 해설서의 내용은 특이하게도 원측과 규기가 해석을 달리했던 공유논쟁, 종성론, 사분설, 『반야경』에 대한 교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Minsung Lee, 2022. "Contextualising Wōnhyo." PHD dissertation, Ruhr-Universität Bochum, pp.95-152).

35) 현장역 「이취분」이 따로 유통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7세기 후반 실차난타 역 「이취분」이 따로 유통된 흔적은 있다. 즉, 578권 또한 따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578권은 1권과 같이 원측이 쓴 서문이 있다.

36) 원효는 현장역 원문에서 「이취분」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규기의 『대반야바라밀다경반야이취분술찬』에서 간접 인용하였다. 그리고 규기가 언급한 '평등법성'을 『대혜도경종요』에서 여래장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민성, 2022, 「규기의 주장에 대한 원효의 견해, 그리고 원측과의 접점(1)」, 『선문화연구』32, 155-158쪽.

에서 원효는 『성유식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심식설로 관조반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유식 교학을 언급하는 동시대 학자는 규기와 원측 밖에 없다. 이 논서는 659년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원효가 이들이 대립했던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 IV. 규기의 주장, 그리고 원효와 원측의 동일한 견해

원효는 『대혜도경중요』에서 『해심밀경』의 『반야경』 2시 법륜설(二時法輪說)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규기와 원측 또한 『해심밀경』의 내용을 논하고 있는데, 원효의 주장은 놀랍게도 원측의 주장과 같으며, 규기의 주장과 배치된다.

〈표6〉 『해심밀경』 내 『반야경』 교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기, 원측, 원효의 주장 비교

『해심밀경』	『성유식론술기』	『해심밀경소』	『대혜도경중요』
두 번째 시기 중에 [세존께서] 오직 대승에 발심하여 나아가고 수행하는 자들만을 위해 ‘일체 법이 공하여 자성이 없고 생성도 없으며 소멸도 없다. 본래 고요한 자성이 열반이다.’라는 것에 의지하여 온 밀한 상으로 바른 법륜을 굴리셨다. 하지만 이 법륜 역시 그 보대 위의 [법륜]이 있으며, 이것은 완전한 의미가 아니다. <sup>37)</sup>	이른바 『마하반야경』 등은 중근기 [사람들이 대승을 취하고 소승을 버리게 한다. … 중략 … 미혹함과 오류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승의 가르침과 『반야경』은 모두 중도가 아니다. <sup>38)</sup>	이 중에 제2법륜과 제3법륜이 설하는 것인 무상(無相)은 이차상 깊고 알음이 없다. 이 이차에 의하면 [제2법륜과 제3법륜 모두 궁극적 의미의 법문이지만, 지금 제3법륜만을 궁극적 의미의 법문라 삼는 것은 세 종류의 자성(自性) 등을 모두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야 역시 삼성(三性)을 설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제2법륜; 『반야경』도 마땅히 궁극적 의미의 법문이라고 해야 한다. <sup>39)</sup>	그 교편이 이 『대품반야경』 등을 모두 두 번째 시기로 분류하고, 두 번째 법륜에 포함시킨 것은 이차상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경과 논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sup>40)</sup>  이것으로써 지금 이 경 『반야경』이 세 번째 나타는 궁극적 법륜과 같다고 확실히 알 수 있다. <sup>41)</sup>
논쟁의 시작이 되는 현장역 원문	『해심밀경』 내용을 따르며 『반야경』 폄하	『반야경』도 3시 법륜에 포함	규기의 주장 반박; 원측과 동일

\*출처: CBETA CReader 2016; 韓佛全

원효는 『해심밀경』의 『반야경』 2시 법륜설을 소개하고, 이 교판을 따르는 논자를 이례적으로 비판한다. 『해심밀경』의 『반야경』 교판설을 논한 동시대 학승은 규기, 원측, 원효 이외에 찾지 힘들다. 그러므로 그 논사는 규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원효가 그의 견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추론한다.<sup>42)</sup> 그리고 <표6>에 따르면, 원효와 원측의 교판 해석이 같음을 알 수 있다.<sup>43)</sup> 물론 원효가 『성유식론』 및 관련서를 본 증거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대혜도경종요』에서 『성유식론』의 사분설(四分說)을 논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보아, 규기의 저술을 참고한 것은 적어도 확실하다.

또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원효는 ‘의타기성(依他起性)이 공하다’라는 문장을 ‘依他性空’으로 표현하는데, 원측, 법장을 제외한 다른 동시대 학승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며 후대에도 드물다. 한편 원측은 『인왕경소』에서 2번, 『반야바라밀다십경찬(般若波羅蜜多心經贊)』에서 1번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원측의 표현일 수 있고,<sup>44)</sup> 원효가 이와 원측의 견해를 참고했을 수도 있다. 실제 이 단어가 보이는 지점은 원효가 실상반야를 설한 부분에서 청변과 호법의 견해를 소개한 뒤, 두 주장을 모두 수용한 대목인데, 원측 또한 두 학승의 견해가 중도에 모인다고 이치에 맞다 설하고 있다.<sup>45)</sup> 원효가 청변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 또한

37) 『解深密經』(大正藏16, 697a) “第二時中 惟為發趣修大乘者 依一切法皆無自性。無生無滅本來寂靜 自性涅槃。以隱密相轉正法輪。雖更甚奇 甚為希有。而於彼時所轉法輪 亦是有上 有所容受 猶未了義。”

38) 『成唯識論述記』(大正藏43, 229c) “所謂摩訶般若經等 令中根品捨小趣大…迷謬競興未契中道。”

39) 『解深密經疏』(韓佛全1, 290c) “於中第二第三法輪所說無相 理無淺深。若依此理 皆是了義。而今第三爲了義者 具顯三種自性等故。據實般若亦說三性 應是了義。從多分說 故言不了。”

40) 『大慧度經宗要』(韓佛全1, 486c) “其判此大品經等 皆屬第二時攝第二法輪者 理必不然。違經論故。”

41) 『大慧度經宗要』(韓佛全1, 487a) “以此證知 今此經者 同於第三顯了法輪。”

42) 동시대 학승들은 이 내용만 읽어도 원효가 이야기하는 논자가 규기이고, 그를 비판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43) 물론 원효가 『해심밀경』의 내용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효는 이 대목에서 이 교판을 논한 논사(或者)에 대해 말하고 있다.

44) 『仁王經疏』(大正藏33, 361a) “次清辨菩薩引經證成依他性空。”; 『仁王經疏』(大正藏33, 395b) “依他性空。”; 『般若波羅蜜多心經贊』(大正藏33, 545a) “二依他性空。”

원측의 문헌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 V. 결론

원효와 원측의 관계는 그간 연구된 바는 없기에 시론적 연구로 조심스레 접근하였다. 디지털 분석의 결과는 추후 해당 문헌의 내용을 세밀히 읽고 상호 문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으로 논했던 우부인의 영향으로 비롯된 규기의 몰락과 원측의 흥기는 7세기 중반 이후 현장계의 몰락과 신라 승려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한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부인이 당나라 내에서 수나라 핏줄의 권력자임을 고려하면, 그녀가 외국인 승려 원측과 교외의 사찰에 주석하던 지엄 등 화엄종 승려들을 중용한 점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원측과 규기와의 대립, 의상의 화엄학 유학 등의 동시대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할 때, 원측과 원효 간의 관계에 대한 정황은 더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장이 원효의 영향을 받은 경우까지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교판 비교와 같은 짧은 논증으로 원효와 원측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종성론 등에 관련한 부분도 원효의 주장은 원측의 견해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앞으로 원효의 다른 저술과 함께 원측과 규기의 저작들을 함께 다룰 계획이다.

---

45) 이민성. 2022. 「규기의 주장에 대한 원효의 견해, 그리고 원측과의 접점(1)」, 『선문화연구』32, 170-171쪽.

Abstract

## A Theoret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ōnhyo and Wōnch'ūk

Ph.D. Minsung Lee.  
(Ruhr-University Bochum)

This study is an introductory articl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ōnhyo (元曉, 617-686) and Wōnch'ūk (圓測, 613-696). Based on digital analysis using the CBETA database and SAT program, as well as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ir texts, the paper raises reasonable doub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uddhist scholars and proposes a new approach.

First, using the CBETA and SAT program, the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search for key words related to major debates in Wōnhyo's *Taehyedyōng chongyo* 大慧度經宗要. These results provide macro indicators that Wōnhyo and Wōnch'ūk were interested in similar subjects.

Second, the paper sheds light on the conflict between Kuiji (窺基, 632-682) and Wōnch'ūk by explo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nstruction of Temple Ci'en and Temple Ximing, where both scholars resided. Specifically, the involvement of Wu (the concubine of Emperor Gaozong, who later became Empress Wu Zetian) is discussed. Additionally, the paper considers how the conflict may have influenced Wōnhyo.

Third, it reveals that within *Taehyedyōng chongyo*, which is related to this historical background, Wōnhyo made the same argument as Wōnch'ūk

on a specific subject, along with expressing a critical opinion about Kuiji's view.

Based on these results, although Wōnhyo and Wōnch'ŭk may not have met directly, the paper suggests a high possibility of indirect influence between them.

**Key words:** Wōnhyo, Wōnch'ŭk, Kuiji, *Taehyedogyōng chongyo*(大慧度經宗要), Wu Zetian.

논문투고일: 2023.01.31. 심사종료일: 2023.02.08. 게재확정일: 2023.02.13.

## 참고 문헌

### 원전류

- 『故翻經證義大德圓測和尚諱日文』(大藏經補編選錄31)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大正藏50)  
『大周西明寺故大德圓測法師佛舍利塔銘』(卍續藏88)  
『大慧度經宗要』(韓佛全1)  
『三國遺事』(大正藏49)  
『攝大乘論』(大正藏31)  
『成唯識論』(大正藏31)  
『成唯識論料簡』(卍續藏48)  
『成唯識論別抄』(卍續藏48)  
『成唯識論述記』(大正藏43)  
『宋高僧傳』(大正藏50)  
『新修科分六學僧傳』(卍續藏77)  
『十門和諍論』(韓佛全1)  
『瑜伽師地論』(大正藏30)  
『仁王經疏』(韓佛全1)  
『入唐求法巡禮行記』(大藏經補編選錄18)  
『三國遺事』(大正藏49)  
『顯揚聖教論』(大正藏31)  
『解深密經疏』(卍續藏21)

### 국내 논저

- 남동신. 2008. 「玄奘의 印度 求法과 玄奘像의 추이」. 『불교학연구』 20: 191-242.  
남무희. 2005. 『圓測의 生涯와 唯識思想 研究』. 서울: 國民大學校 박사학위논문.  
남무희. 2006. 「원측의 입당구법과 당에서의 활동」. 『중국사연구』 43: 69-92.  
이 만. 2000. 『한국유식불교사상사』. 서울: 藏經閣.  
이민성. 2022. 「구기의 주장에 대한 원효의 견해, 그리고 원측과의 접점(1)」. 『선문  
회연구』 32: 170-171.  
장규연. 2015. 「서명학파(西明學派)라는 창」. 『한국사상사학』 50: 321-365.  
키츠카와 토모아키(橘川智昭). 2001. 최연식(역). 「圓測思想의 재검토와 과제」. 『보

## 국의 논저

- 江田俊雄. 1954. 「慈恩・西明爾學派の『金光明最勝王經』解釋」. 『印度學佛教學研究』 2(2): 531-532.
- 結城令聞. 1956. 「玄奘とその學派の成立」.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1: 368-372.
- Chen, Jinhua. 2007. *Philosopher, Practitioner, Politician: The Many Lives of Fazang (643-712)*, Leiden: Brill.
- Cho, Eunsu. 2005. "Wōnch'ūk's Place in the East Asian Buddhist Tradition." In *Currents and Countercurrents*, edited by Robert E. Buswell J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173-216.
- Eisenberg, Andrew. 2012. "Emperor Gaozong, the Rise of Wu Zetian, and Factional Politics in the Early Tang." *Tang Studies* vol. 30. pp.45-69.
- Jorgensen, John. 2013. "Representing Wōnch'ūk." In *Religion and Biography in China and Tibet*, edited by Benjamin Penny. New York: Routledge. pp.74-131.
- Keng, Ching. 2018. "How Do We Understand the Meaning of a Sentence Under the Yogācāra Model of the Mind? On Disputes Among East Asian Yogācāra Thinkers of the Seventh Century."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46(3):475-504.
- Lee, Minsung. 2022. "Contextualising Wōnhyo." PhD dissertation, Ruhr-Universität Bochum.
- Lusthaus, Dan. 2003. *Buddhist phenomenology: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of Yogacara Buddhism and the Ch'eng Wei-shih Lun*. New York: Routledge.
- Twitchett, Denis, and Wechsler, Howard J. 1979. "Kao-tsung (reign 649-83) and the empress Wu: the inheritor and the usurper."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3, edited by Denis Twitchet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42-289.
- Wang, Ying. 2017. "A Critical Study on Wōnch'ūk's Life and his Doctrinal

Classification in his Commentary on the Jieshenmi j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mburg.

Wong, Dorothy C. 2018. *Buddhist Pilgrim-Monks As Agents of Cultural and Artistic Transmission: The International Buddhist Art Style in East Asia, Ca. 645-7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인터넷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SAT DB 2018.